인 사 말

양 지 영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회장

(사)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제15대 회장직을 맡게 되면서 그동안 학회 발전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14분의 전임 학회장님, 임원진, 그리고 학회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학회는 지난 34년간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과 위생분야에 다양하고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산 · 학 · 연 · 관의 체계를 통하여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한 축을 담당했다 하더라도 부족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사회의 발달과 사회구조의 변화는 식품안전과 위생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과 분야의 접목을 요구하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안전기술에서 4차 산업, 빅데이터, AI가 접목된 식품안전 기술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고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도 과거의 단순한 위해도 평가보다 새로운 현대적 기법에 의한 위해성 평가기술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원료의 도입, 새로운 유통구조의 출현은 또 다른 안전한 식품유통구조 관리라는 과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미세먼지 및 황사 관리, 미세 플라스틱의 출현, 기후변화의 문제는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의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 입니다. 이렇게 쌓여있는 새로운 식품안전관리의 문제들에 우리 학회는 직시하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들을 제시해야하는 시대적 요구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학회장을 맡게 되어 무엇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학회에 누가 되지 않게 임원진들과 함께 2년간의 임기를 다하고자 합니다. 학회 여러분들의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본 학회는 정기학술대회와 심포지엄을 통해 시대 부응하는 주제로서 식품안전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주도하며 현안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및 정책반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술지위원들과의 긴밀한 노력을 통해 2020년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의 SCOPUS 등재를 추진하고자 하며, “Safe Food”를 통해 산업적 학술정보 및 정책정보 등의 제공을 통해 산 · 학 · 관의 정보전달 및 안전관리 정책지로서의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7일과 8일 경주 HICO에서 개최되는 정기학술대회에서 좋은 주제와 연사들, 학회 여러분들의 많은 연구결과와 함께 하기를 기대하며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미약한 힘이나마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